



2012 PUBLIC EXAMINATION

Heritage Korean

Section 1: Responding to texts

Transcript of Listening Texts

- Text 1
- Text 2
- Text 3

Familiarisation Text

MALE : 김선생님, 안녕하세요?

FEMALE : 네, 이선생님 오랜만이에요.

MALE : 그 동안 잘 지내셨어요?

FEMALE : 네, 별 일 없이 잘 지냈어요.

Section 1: Responding to texts

Question 1, Text 1 – Video conference

이진주: 안녕하세요? 비디오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호주 마케팅부에서 일하는 매니저 이진주입니다.

사장: 안녕하세요. 한국 건강식품 회사 사장 김영호입니다. 우리 회사는 한국에 50개, 호주에 20개의 가게를 두고 있습니다. 이 가게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 201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방법을 시작합니다.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.

이진주: 네.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나요?

사장: 우선, 회사에서 모든 직원에게 스마트폰을 줍니다. 가게의 디스플레이를 맡은 사람은 매일 스마트폰으로 물건 디스플레이 상태를 사진 찍습니다. 그리고 그것을 한국 마케팅부에 보냅니다.

이진주: 사장님, 여기서는 월요일마다 매니저들이 미팅을 하는데요. 그것을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찍어서 한국으로 보내면 어떨까요?

사장: 네, 좋습니다. 아, 그리고, 지금까지는 매일 세일즈 리포트를 팩스로 보내지 않았습니까? 이제는 그것을 이메일로 하기 바랍니다.

이진주: 네. 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직원들은 호주 IT Support에 연락하라고 말하겠습니다.

사장: 좋은 의견입니다.

이진주: 사장님, 제가 오늘 미팅 내용을 정리해서 호주에 있는 직원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Question 2, Text 2 – Conversation

민수: 유나야, 너 ‘세계 속의 한국인’이라는 TV 프로그램 봤니? 꿈을 이루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국인들에 관한 내용이었어. 정말 감동적이었어.

유나: 민수야, 난 그런 것엔 관심 없어. 나랑 상관도 없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.

민수: 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알리는 한국인들이 자랑스럽지 않니? 가수, 연기자, 비보이 댄스팀, 운동선수 등 많은 사람이 한국을 알리고 있어. 요즘은 한국 드라마, 노래, 춤 등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잖아. 외국 친구들도 유명한 한국 가수나 연기자 이름은 알던데, 유나 넌 한국인으로서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니?

유나: 호주에 살면서 꼭 그런 걸 알아야 해? 나야말로 널 이해 할 수가 없다.

민수: 유나야. 아무리 우리가 호주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. 우리나라에 ‘애국애족’이라는 말이 있는데 들어 봤어?

유나: ‘애국애족’?

민수: ‘자기의 나라를 사랑하고 아낀다.’는 뜻의 유명한 말이야. [흥분된 목소리로] 난 호주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워.

유나: 글썸. 난 호주 문화, 호주에 대해서만 잘 알면 된다고 생각해.

민수: [큰 목소리로 야단치듯] 유나야, 한국인이면서도 우리나라에 대해 모른다는 사실은 정말 부끄러운 거야! 아무리 우리가 호주에서 살고 있어도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내가 좀 전에 말해 줬잖아!

유나: 난 전혀 부끄럽지 않아. 야, 네 생각을 나한테 강요하지 마.

민수: 유나야, 우린 헤리티지 학생이잖아. 너처럼 호주 문화만 고집하기보단 호주와 한국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얘기한 거야. [후유...]

Question 3, Text 3 – Conversation

창수: 엄마, 여기 사인 좀 해 주세요.

엄마: 이게 뭐니, 창수야?

창수: 학부모 동의서예요. 별거 아니예요. 그냥 사인만 하시면 되요.

엄마: 빨리 말해. 뭔데?

창수: 학교 댄스 대회 참가 동의서예요.

엄마: 뭐? 댄스? 너 12학년이 무슨 댄스니? 공부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텐데.

창수: 엄마, 내가 할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해요. 이 대회에 나가려고 6개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요. 그러면서도 지난 번에 성적은 잘 받았잖아요.

엄마: 그래도 안돼. 엄마가 잔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. 다 너를 위해 그러는거야.

창수: 엄마, 사실은... 난 프로페셔널 댄서가 되고 싶어요. 그래서 이번 댄스 대회가 나한테는 정말 중요해요.

엄마: 너 정신 있어? 먼저, 공부를 더 열심히 해. 너는 내일 모레가 어머니 날인데, 엄마한테 이렇게 밖에 못 하겠니! 엄마, 정말 속상해.

창수: 엄마는 날마다 그 공부하라는 소리만 하시고... 나는 더 속상하다고요!